

보도 일시	2022. 11. 14.(월) 조간 2022. 11. 13.(일) 11:00	배포 일시	2022. 11. 11.(금) 오후
담당 부서	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	책임자	과 장 최국일 (044-200-5960)
		담당자	사무관 이민영 (044-200-5961)

해외 항만관계관 초청해, 우리 항만개발기술 홍보에 나선다

- 동티모르,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는 항만 관계관 초청연수 진행 11.14(월)~18(금)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11월 14일(월)부터 18일(금)까지 동티모르, 싱가포르, 캐나다, 크로아티아 등 4개국의 항만개발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를 초청해 '해외항만 관계관 초청연수'를 실시한다.

해양수산부는 해외항만개발 협력국가와의 우호를 다지고 우리나라의 항만 정책 및 기술 소개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항만개발 사업 수주를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'해외항만 관계관 초청연수'를 운영해왔다. 2019년까지 총 27개 국가 160여 명의 해외 항만관계자들이 동 연수에 참여하였고, 연수를 통해 구축된 인적 협력망은 우리 기업들이 연수 참여국의 항만개발시장에 진출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으나, 올해 9월 재개하여 베트남, 캄보디아 등 총 4개 국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진행하였고, 이번에는 동티모르, 캐나다, 크로아티아 등 4개 국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.

이번 연수에는 동티모르 재무부 및 농림수산부, 싱가포르 피에스에이(PSA), 캐나다 알버니(Alberni) 항만청, 크로아티아 리예카(Rijeka) 항만청 등이 참가할 예정이며,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등의 관계자들이 우리 항만정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. 특히, 해양수산부는 동티모르, 싱가포르, 캐나다, 크로아티아 등 각 국가와 우리나라 간 양자 실무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.

최국일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“이번 초청연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만개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기임은 물론이고, 참여 국가와 우호를 증진하여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항만개발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말했다.



참고

과거 해외항만관계관 초청연수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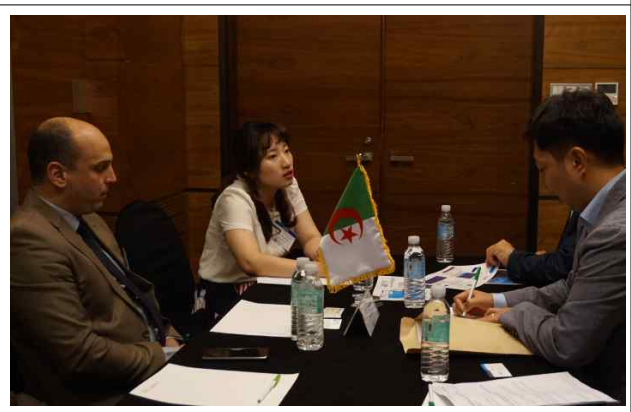
<개회식>



<양자회담>



<국별보고>



<비즈니스 간담회>



<부산 BIDs 컨테이너 방문>



<부산 BNCT 물류센터 방문>



<부산 신항 홍보관 방문>



<크루즈 유람선 탑승>